

근로자 생식보건 역학연구 (1)

연구기간

2021년 2월 ~ 2021년 12월

핵심단어

근로자 생식보건, 유산, 조산, 저체중아

연구배경

- 선행연구 결과, 국내 일부 남성 및 여성 근로자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생식보건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나, 특히 국내 남성근로자의 생식보건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. 따라서,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DB와 가족관계도 DB(Kim et al., 2019)를 연계하여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에 따른 유산/조산/저체중아 출산의 발생 위험도 평가를 수행한 후,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.

주요연구내용

연구결과

- 남성 근로자의 업종 별 유산 발생 위험도 분석 결과, ‘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84)’ 대조군과 ‘교육 서비스업(85)’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대조군에 비해 유산 발생 위험도가 높았던 업종은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, 숙박업(55), 보건업(86),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(95)이었다. 반면, 일관되게 유산 발생 위험도가 낮았던 업종은 임업(02)이었다.
- 여성 근로자의 업종 별 유산 발생 위험도 분석 결과, ‘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84)’ 대조군과 ‘교육 서비스업(85)’ 대조군, ‘피부양자’ 대조군 모두에서, 유의하게 대조군에 비해 유산 발생 위험도가 높았던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(13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항공 운송업(51), 보건업(86), 사회복지 서비스업(87) 이었다. 이 중 오즈비가 눈에 띄게 큰 것은 항공 운송업(51) 이었다.
- 남성 근로자에서 세 가지 생식보건 결과 지표(유산, 조산, 저체중아 출산)에서 동시에 위험도가 높게 관찰된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 이었다.

- 여성 근로자에서 세 가지 생식보건 결과 지표(유산, 조산, 저체중아 출산)에서 동시에 위험도가 높게 관찰된 업종은 보건업(86) 이었다.

시사점

- 분석결과,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식보건의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. 후속과제에서는 위험도가 높이 평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생식보건 위험요인에 대하여 평가하여, 근로자의 생식보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.

연구활용방안

활용방안

- 국내 근로자의 생식보건 보호를 위해 사업장을 관리하고 취약한 근로자 집단을 관리하는 정책의 개발 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.

연락처

연구책임자 |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중부권역학조사팀 예신희

연락처 | 032-510-0754

e-mail | shinheeye@kosha.or.kr